DGB, 지주사 vs 이사회 힘겨루기… 행장선임 '하세월'

〈은행〉

'지배구조개선안' 갈등 심화
지주회장 겸직 가능성 논란
행장 공백사태 장기화 전망
18·19일 지배구조 재논의

DGB대구은행이 또 다시 내부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달 DGB금융이 발표한 지배구조개선방안을 두고 지주사와 은행이사회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것. 특히 최근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이 지주사 중심의 지배구조 개선안을 추진할 것을 밝히면서 은행 이사회와의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내년까지 은행장 공백사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재도약 시기도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구은행은 지난 4월 박인규 전 행장이 비자금조성과 채용비리 등에 연루돼 행장직에서 물러나 박명흠 부행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태오 DGB금융 회장은 지주사 중심의 지배구조개선안을 추진하고, 대표이사 후보 추천권을 '자회사(은행 등)'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지주사'의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 추천위원회로 옮기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지난 10일 대구 동구 DGB대구은행혁신센터에서 "은행장 추천권을 지주사가 갖는 것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지만 투명하고 명확한 기준 설정이라는 취지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두번째줄 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10일 DGB대구은행혁신센터에서 지주중심의 지배구조개선 추진을 공식화했다. /대구은행

그러나 은행 이사회 측에선 김 회장이 추진하는 지배구조개선안이 본인의 권력 강화와 은행장 겸직을 위한 것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에 담긴 은행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전·현직 임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은행장 장기공백이 지속돼 김 회장이 은행장을 겸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따르면 DGB금융은 현재 은행장 등 후보의 경력을 '금융회사 경력 20년 이상' 기준에서 '금융권 임원 경력 5년 이상', '은행 사업본부 임원 2개 이상 역임', '지주사 및 타 금융사 임원 경험'을 최소 요건으로 둬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그러나 최근 5년이상의 임원들이 인적 쇄신 차원에서 물러나거나 채용비리 등에 연루돼 있어 내부에서는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을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

김 회장은 "연말까지 (채용비리 관련) 사법처리가 일단락되면 후보군을 대상으로 CEO경력개발 프로그램에 따라 보험 캐피탈 등 임원 경력을 쌓게 하고, 일정 경력이 쌓이면 이들이 차기 은행장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소 1년 이상 차기 은행장 선임이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DGB대구은행 노조는 양측 이사진이 타협점을 찾기 위한 방안으로 지주사와 은행 이사회가 행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선임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제안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지주사는 현재 추진 중인 지배구조 개선안이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선진적 기준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은행 직원의 생각을 귀 기울여 듣고 수용할 것은 수용해야 한다"며 "왜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한 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고, 권력이 집중될 가능성을 배제하는 강력한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김 회장의 지배구조개선안 추진이나 은행장을 겸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추후 논의를 통해 채택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주사와 은행의 사외이사들은 오는 18일과 19일 이사회를 열고 지배구조관련 사항을 내부 규정으로 채택할 지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금융 다이제스트

신한은행

금리 3.7%, 2000억 규모 원화신종자본증권 발행

신한은행은 2000억원 규모의 바젤Ⅲ 기준 적격 원화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신종자본증권은 5년 콜옵션을 보유한 영구채 행태로 발행되며 발행금리는 2018년 발행된 원화 신종자본증권 중 가장 낮은 3.7%다.

영구채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바젤 III 조건에 부합하는 만기 없는 영구채 성격의 조건부 자본증권으로 부실 금융기관 지정 시 원리금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및 자본비율이 일정수준 미달(은행업감독규정 제 26조)할 경우 이자(배당)지급이 제한되는 자본증권이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배종우 올림픽선수촌 PB센터지점장(오른쪽)이 지난 12일 '28회 글로벌 웰스 서밋 앤 어워즈 2018'에서 '2018 글로벌 혁신 비즈니스모델 우수 PB은행'으로 선정, 수상 후 무바라크 마사우드 PBI지(誌) 사업개발부문 이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EB하나은행

영국 PBI誌 선정, 7년 연속 글로벌 혁신 우수PB은행상

KEB하나은행은 영국 금융전문지 'PBI지'로부터 '2018 글로벌 혁신 비즈니스모델 우수 PB은행'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된 PBI지의 '제28회 글로벌 웰스 서밋 앤 어워즈(Global Wealth Summit and Awards) 2018'에서 '글로벌 혁신 비즈니스모델 우수 PB은행상', '남아시아 지역부문 우수 PB은행상', 'M&A를 통한 성장전략 보유 우수 PB은행상' 등 세 부문을 동시에 석권했다. /김문호 기자 kmh@

신한은행

'쉐이크 유얼 쏠' 페스티벌

신한은행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워너원과 함께 대고객 경품 증정 이벤트 '쉐이크 유얼 쏠(Shake your SOL)'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먼저 'Shake your SOL(흔들기)'은 신한 쏠(SOL) 앱을 다운받고 로그인한 뒤 흔들기만 하면 즉석에서 스타벅스 커피쿠폰과 GS25 모바일 쿠폰 증정한다. 'Shake your SOL(소개하기)'은 지인에게 신한 쏠(SOL)을 추천하면 추첨을 통해 기아차 쏘울(1명), 가족 해외여행 상품권(5명) 등을 제공한다. 'Shake your SOL(영상공유하기)'은 나만의 쏠 흔들기 영상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좋아요' 수가 많은 고객 순으로 갤럭시노트9(5명), 호텔 상품권(15명)을 증정한다. /유재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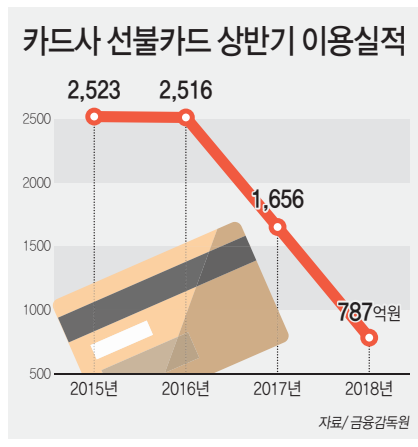
신용카드 혜택 등 2030 저격… 코나카드 '고공행진'

〈선불식 충전〉

선불카드 하락세에도 실적 굳건
올해 안에 200만장 돌파 전망
한도 없는 혜택 등에 인기몰이

카드업계의 선불카드 이용실적이 급감하고 있는 반면 선불식 충전카드 코나카드는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2030세대를 겨냥해 달 혜택을 업데이트 시킬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만큼의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 연내 200만장이 넘을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15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상반기 선불카드 누적 이용실적은 787억33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56억5800만원(5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불카드를 판매하고 있는 8개 카드사는 2015년 상반기



2523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16 2516억원, 2017년 1656억원, 2018년 787억원으로 급감했다.

반면 코나아이가 출시한 선불카드, '코나카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 2월 홍보를 시작한 이후 2분기에는 46만장, 3분기에는 90만장을 돌파했다. 카카오페이가 90일 만에 50만장 발급된 것과 비교해도 빠른 속도다.

선불카드는 카드에 연결된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해 카드를 충전한 후 충전 금액만큼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다.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해당금액을 기록해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 때문에 현금카드 체크카드와 같은 30%의 소득공제율을 제공하고 있다..

코나카드의 장점은 무엇보다 다른 카드와 차별화된 혜택이 꼽힌다. 혜택이 고정돼 있는 신용·체크카드와 달리 혜택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것. 신용카드가 실적 충족여부에 따라 혜택을 제공한다면 코나카드는 결제 시 0.2% 캐시백 커피빈 20% 할인, 오크밸리(수영장·사우나) 50% 할인 등 조건, 한도 없는 기본 혜택을 제공한다

때문에 코나카드 가입회원은 20대가 41.7%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대가 23.3%, 30대가 19.5%로 뒤를 이었다. 4050세대도 15.5%로 구매력이 있는 장년층에서도 적지 않은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코나카드는 교통카드로 이용할 경우 선불 충전금액과 관계없이 별도로 충전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코나카드 잔액과 교통카드 잔액이 호환되지 않는 것. 실제로 이용한 결과 카드에 잔액이 있더라도 버스와 지하철의 결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때문에 교통카드 충전은 편의점 및 역사에서 하고, 잔액은 편의점 등 교통카드 충전소에서 확인해야 한다. /나유리 기자

KB금융, 통합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7개 계열사 데이터 통합 활용
"중금리 대출 활성화 기대"

KB금융이 7개 계열사의 신용데이터를 바탕으로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한다.

KB금융그룹은 금융권 최초로 금융그룹 계열사 데이터를 통합해 활용한 '그룹 통합 소매 신용평가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계열사 자체 정보만을 이용한 기존 신용평가모형과 달리 은행·증권·손해보험·카드·생명보험·캐피탈·저축은행 등 KB금융 내 7개 계열사의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시스템이다. 업계 최초로 금융그룹 전체의 데이터를 통합해 활용했다.

이와 함께 KB금융의 데이터는 물론, 외부 신용정보회사의 빅데이터를 함께 활용해 금융거래 정보가 부족한 씬파일러(Thin filer)에 대한 평가의 불이익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했다. 평가모형의 성능 제고를 위해서는 머신러닝 기술(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는 최신 기술)을 적용해 모형의 고도화를 꾀했다.

KB금융은 '그룹 통합 소매 신용평가시스템'으로 중·저신용 고객군에 대한 평가 정교화가 가능해져 중금리 대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는 이를 통해 추가 대출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제56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8년 11월 14일~12월 6일
매주 수,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 (주말반) 2018년 11월 17일~12월 8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옵션) : ~~300,000~~ → 130,000원
11월 25일(일), 12월 2일(일), 12월4일(화)
※사전 수강 신청 필수 -홈페이지 참조
www.leadersauction.com
교육문의 02) 521-9111 (강남역 5번출구)